



# 상악전치부 치아 발거 후 즉시 식립 및 즉시 부하를 가한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한 증례

이 미 란\*, 박 찬 진, 이 양 진, 조 리 라 |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골유착의 임상적 측정은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한 비파괴적 방법으로는 있는 타진반응, 방사선사진, 디지털공제방사선촬영술(DSR), Periotest, Dental Fine Tester, Thread Cutting Force, Reverse torque testing, 공진주파수분석(RFA), 등이 있다. 이 중 공진주파수분석법(RFA)은 정량적이고 가장 과학적으로 진전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디지털공제방사선촬영술(DSR)은 표준화를 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나 임플란트 주변골의 미세한 변화를 진단하는데 유용하다.

본 증례는 심한 우식이 있는 상악 4전치의 발치후, 즉시식립 임플란트에 즉시부하를 가해 수복한 증례로서,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진주파수분석법(RFA)과 디지털공제방사선촬영술(DSF) 및 periotest을 이용하였다. 임플란트 식립전, 해당 치아의 치근단방사선사진을 통해 치근단 염증 상태를 확인하였고, 임플란트의 방향 및 직경을 결정하였다. 환자의 진단모형을 통해 디지털공제방사선촬영술을 위한 장치물 및 임시보철물과 금속구조물을 제작하였다. 조심스런 발치와 엄격한 소파술을 시행한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식립후 임시보철물에 금속구조물을 붙인 후 즉시부하를 가하였다. 식립시와 3, 6, 9개월 후 RFA와 DSR 및 PTV를 측정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안정된 결과를 보여 보고하고자 한다.